**【요한복음 13장 13-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나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때가 가까워졌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사막지대로 먼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멋진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누군가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일을 가장 비천하게 여기어 그 집의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신을 벗기시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으신 용서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회개할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인내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가 이를 보고 배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게 하심인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사랑****하라 너희가** **서로****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